

軍 “한가위 연휴, 국민 안전·편의 최선”

긴급구조·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국수사, 장병 귀향 전세객차 편성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정상 업무

국방부는 10일 “한가위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기간인 11~15일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6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의 지원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국 13개 군 병원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휴 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시간과 관계없이 인근 군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며 “우리 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장병들이 편안히 고향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국수사는 한가위 기간 37개 열차, 3100석의 군 전세객차를 편성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호송대대는 이 기간에 군 전세객차 내 좌석안내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승무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TMO에서도 장병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10일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국립묘지 안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다”며 “이 기간 많은 참배객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국립묘지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춘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각 국립묘지가 인근 소방서와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한가위 당일 구급대원이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참배객들의 묘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전 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평소보다 5대 증편해 총 6대를 운행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은 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19 민주묘지와 5·18 민주묘지는 참배객들에게 각각 음료와 국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3·15 민주묘지는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진료 안 내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국 5개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구급차량이 상시 대기하는 것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32개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한가위만 같아라

■ 특별기획 별별랭킹·군 봉사활동 7~9면



“철통 안보 대비태세 이상없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먹거리를 장만하고 선물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군 장병들은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있다. 10일 해군특수전전단 종합전술훈련장에서 평소와 다르없이 전술사격훈련에 임하는 특수임무대대 장병들의 총기가 불을 뿜고 있다. 진해=조종원 기자

명절 맞아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박차… 10월 집중홍보 기간 정하고 국방TV·국방FM 등 캠페인 적극 전파

군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6·25 전쟁의 숨겨진 호국영웅 찾기에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10일 “가족·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가위 명절과 국군의 날·지상군페스티벌 행사가 열리는 10월을 ‘6·25무공훈장찾아주기’ 집중홍보 기간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는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등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숨은 영웅을 찾는 사업이다. 조사단은 캠페인 기간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홍보물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달 중 홍보 포스터 1만5000장을 각급 부대 및 행정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가위라 더 뜻깊은 ‘숨은 호국영웅 찾기’

의 반사회보, 전국 노인회 소속의 경로당을 통해서 활발한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

유관 부처와 기관들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국방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해당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있다. 국방홍보원은 이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국방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오후 5시 호국영웅들을 하나하나 호명한다. 국방TV·KTV·국회방송도 캠페인 관련 자막 방송을

송출 중이며, 앞으로 TBS·TBN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자막 방송과 라디오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7월 24일 편성된 이후 단기간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달 6~9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출범 이후 첫 탐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광주광역시 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공훈장 대상자 359명 중 180명을 확인했다. 군번만으로 공로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1661-7625’ 번호로 상담

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단은 국민 3000여 명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20여 명의 호국영웅과 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무공훈장 대상자 5만6000여 명의 명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방부와 육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훈 명부를 정리하고, 병무청과 보훈처에 보내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 한가위 연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친지들의 무용담을 나누고, 나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조상들의 무공훈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범국가적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 편집=박재운 기자